

이웃 사라진 전남, 복지기동대가 '이웃사촌'

22개 시·군 297개 읍면서 민관 협력 생활개선 등 활약 복지 취약계층 동절기 집중 지원 1만1449가구에 혜택 난방품 후원·생필품 지원 등 민간 자원 지원도 늘어나

젊은 사람은 떠나고 가난한 노인 인구만 남아 있는 전남 곳곳에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기름값을 아끼느라 추위에 떨면서도 보일러 가동을 하지 못하는 할아버지, 강풍과 폭설에 무너져 내린 벽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버티며 홀로 사는 할머니 등에게 따뜻한 이웃이자 무엇이든 고쳐주고 지원해주는 후원자가 되고 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민선 7·8기 전남지사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9년 4월 출범해 6년째 4700여명의 복지기동대원이 22개 시·군과 297개 읍면동에서 활동 중이다. 까맣게 늘어붙은 장판을 안전한 내열 장판으로 교체해주거나 무너진 지붕과 벽을 다시 만들고, 난방시설을 수리하거나 후원으로 들어온 물품을 직접 배합하는 등 소외 계층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3년 말까지 취약계층 14만800가구에 228억원을 지원해 전남도 대표 명품 복지시책으로 자리잡았으며,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민관협력 자원봉사 조직이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개선, 생활안정자금 지원,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살펴보는 시스템이다.

지난 2022년부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에 나서, 복지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에도 힘썼다. 이번 동절기 집중 지원으로 복지 취약계층 1만1449여 가구를 지원하는데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원 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가 6532가구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장애인 가구(1330가구·11.6%), 노인부부 가구(850가구·7.4%), 한부모 가구(629가구·5.5%), 다문화 가구(322가구·2.8%) 등의 순이었다. 제도권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위기가구 1786가구(15.6%)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8200가구의 겨울철 화재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난방시설 수리와 화재 예방점검 등 맞춤형·선제적 예방 점검은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집중지원에선 또 민간단체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난방유 및 난방 물품 후원, 생필품 지원 등도 대폭



지난 2019년 4월 출범한 전남도의 민관협력 자원봉사조직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이번 겨울에만 12억원을 투입해 1만1449여 가구를 지원했다. 사진은 취약가구의 전등을 교체해 주고 있는 대원들.

늘어나 민간 자원 지원까지 합하면 총 23억5000여만원 상당이 지원됐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겨울 이웃의 어려움을 살펴 앞장서서 봉사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있어 모두가 따뜻하고 든든하게 지낼 수 있었다"며 "봄철에도 복지기동대가 이웃의 생활 불

편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기동대의 도움을 바라는 도민은 누구나 전남도가 운영 중인 24시간 위기를 120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을 이·통장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구직 희망 경단녀 지원 도 '경력이음바우처' 이용자 모집 29일까지 취업 준비비용 50만원

전남도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 구직에 필요한 취업·면접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경력이음바우처' 이용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경력이음 바우처 이용자에게는 취업·면접 준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일 기준 전남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취업 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30~65세(1959년생~1993년생)로, 재취업을 바라는 중위소득 150% 이하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와 실업급여 등을 받는 여성, 여성 농업인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바라는 경력단절여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력이음 바우처 카드는 신청 시군에 소재한 농협은행 시·군 지부에서 발급하고, 연말까지 취업 준비를 위한 도서 구입, 취업 관련 자격증 강좌 수강, 면접 준비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국토 새로 그리는 지적재조사 본격 착수

올해 104개 지구 4만5000필지...도민 재산권 보호 기대

전남도가 국토를 새로 그리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 92억원을 확보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

올해 지적재조사는 22개 시·군 104개 지구, 4만 50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2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측량을 수행할 민간 대행자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2월 말 측량기 준점을 검사 완료했다. 현재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토지조사 등 지적측량에 본격

착수했다. 추후 경계 협의를 거쳐 경제발전위원회에서 경계가 확정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조정금 등 정산절차를 밟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110여년간 사용하면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 불일치에 따른 토지 경계분쟁 등 민원 발생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49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35만 필지를 정리했으며,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8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마을은 공시지가가 평균 16.7%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 맹지는 64%가 해소되고, 토지 정형화는 77%에 달했다.

경계분쟁 해소를 최근 2년간 53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돼 도민 재산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반 비용인 측량비, 등기비, 취·등록세 비용까지 전액 무료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마을별 신청도 늘고 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선제적 추진으로 토지분쟁 해소와 활용 가치를 높여 도민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경제진흥원 첫 일자리협의회 회의

청년층 등 구직 단념자 취업 역량 강화 방안 등 논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전남경진원')이 지난 21일 올해 첫 전남일자리협의회 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청년층 등 구직 단념자 취업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 일자리경제과, 시·군 일자리과, 고용노동지청,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20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남 경진원은 도내 유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 지원 정보를 통합해 올 하반기 '전남

일자리종합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정보, 교육 훈련, 지원 정책 및 제도, 챗봇상담톡, 전자카탈로그, 온·오프라인 1:1 직업 상담 등 일자리와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성희 전남 경진원 원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 문제와 도민 취업을 제고 방안 등을 고민하는 한편, 앞으로 일자리 관련 국고 건의, 제도 개선이나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전남도나 중앙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TP, 스마트공장 구축 93억원 확보...노후 공장 개선·정비 속도

(재)전남테크노파크가 올해 선도형 스마트공장(고도화) 사업 관련 국비 예산을 93억원 확보해 도내 노후 공장들의 개선 및 정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26일 "올해 선도형 스마트공장 사업의 국비는 55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93억5000만원으로, 지난 2023년(45억5000만원) 대비 205% 이상 증가한 규모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정

부 지원과 별도로 매년 85억원 규모의 스마트공장 예산을 수립해 지역기업의 고도화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예산이 60% 이상 삭감되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남도 등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완한 바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현재 선도형 스마트공장(고도화) 구축 지원 사업과 기초 수준의 고도화 장비 구

축을 지원하는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 확산 사업과 관련 지원 기업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는 전남도 등이 지역기업의 제조 혁신을 위해 수요를 발굴하고 그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는 등 부단히 노력해온 성과"라며 "스마트공장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으로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